

독사교상 환자에서의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재석 · 양재원 · 김민수 · 한승태 · 이종인 · 한병근 · 최승욱

Poisonous Snake Bite and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opathy

Jae Seok Kim, Jae Won Yang, Min Soo Kim, Seung Tae Han, Jong In Lee, Byoung Geun Han, Seung Ok Choi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목 적 : 독사교상에 의해 발생하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opathy, DIC)은 출혈, 경색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시키지만 이에 대한 국내의 임상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저자들은 독사교상 환자에서 발생한 DIC의 임상적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 법 :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본원에 독사교상으로 응급실로 내원했던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DIC는 ISTH (International Society on Thrombosis and Haemostasis)에서 제안한 DIC scoring system을 이용하여 정상, non-overt DIC, overt DIC로 구분하고 이들의 임상적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결 과 : 총 100예 중 남자는 69명 (69.0%), 여자는 31명 (31.0%)이었으며 계절별로는 각각 봄 2예 (2.0%), 여름 44예 (44.0%), 가을 54예 (54.0%) 발생하였다. DIC는 non-overt DIC 20예 (20.0%), overt DIC 33예 (33.0%)로 총 53예 (53%)에서 발생하였다. 혈액화학 검사상 혈청 알부민수치는 DIC군이 DIC가 발생하지 않은 군보다 유의하게 낮았지만 (2.99 vs 3.83 g/dl) ($p=0.023$), overt DIC군과 non-overt DIC군 사이에서는 농도 차이가 없었다. DIC 군에서의 저혈소판증 기간은 교상 후 평균 7.46 ± 2.99 일까지 지속됐고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기간은 교상 후 평균 7.85 ± 3.94 일까지 지속됐다. 합병증으로 횡문근융해증의 발생은 정상군에서 10예, non-overt DIC군에서 6예, overt DIC군 22예로 총 38예 (38%)에서 발생하였는데 overt DIC가 발생한 군에서 정상군이나 non-overt DIC군 보다 유의하게 높은 발생율을 보였다 ($p=0.008$) ($p=0.015$). Overt DIC에 의한 출혈은 10예 (33%)였으며 출혈부위는 피부출혈반, 토혈, 혈변, 혈복강, 질출혈, 음낭 및 복강내 혈종 등이었고 보존적 치료로 출혈에 의한 특별한 합병증은 없었다. 경색은 심근경색 1예와 뇌경색 1예가 발생하였다. 교상 후 발생한 DIC를 다변량분석한 결과, 혈청 알부민 농도, 횡문근융해증 발생이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결 론 : 독사교상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overt DIC는 33%에서 발생하였고 이들은 평균 7일 이상의 응고장애와 67%의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